

Robert Vannoy , Foundations of Biblical Prophecy, 강의 15

## 예언 해석 지침

### IX. 예언 해석 지침

#### 4. 이중 이행 또는 이중 참조에 대한 생각을 피하십시오

지난 주에 우리는 로마 숫자 IX., "예언의 해석을 위한 지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중 이행 또는 이중 참조라는 개념을 피하라"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해석학적 규칙으로서 예언적 예언의 다중 성취를 찾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견하게 될 예언서에서 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며, 어떤 예언적 진술은 가까운 성취와 먼 성취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다니엘 8장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장이 BC 164년경 그리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시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단어에 이중 참조를 제공합니다. 같은 단어와 같은 문구가 모두 안티오코스와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이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어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해석학을 불확실하게 만드는가? 여러 감각을 찾기보다 단일 감각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예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의 진술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석학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의미, 역사적 의미 및 영적 의미와 함께 주어진 진술의 3, 4, 5 또는 6가지 다른 의미를 찾는 우화적 방법으로 교회의 초기 세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여러 층의 의미가 있을 때 텍스트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말라기 4:5-6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세션이 끝날 때 한 구절을 추가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4:5와 6입니다 . 이것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참조를 발견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해석 측면에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예언적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발생하는 질문은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입니다. 당신이 성취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구약에서 찾아보기 시작하여 예측이 구약 기간 내에 성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신약을 보고 신약시대에 성취되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신약을 넘어선 것이라면 아마도 교회 시대나 심지어 종말론적으로 오는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두 구절이므로 구약에서 성취를 찾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상으로 이동합니다. 신약으로 가서 성취를 찾으면 엘리야에 대한 신약의 언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이 엘리야에게서 성취되었고 또한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비. 말 4:5-6에 대한 NT 참조      엘리야에 대한 신약 참조를 보면

마태복음 17:3에 변형의 산에서 나타난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장에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이 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희 앞에 보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4:5과 6의 성취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다음 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세레 요한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신약성경 참조입니다. 여러 참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당신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고 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인도하여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한 다음 구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말라기 4:6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환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맹인이 시력을 받는 것은...’” 등등. 7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날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좋은 옷을 입은 남자? 아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 네, 예언자 이상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0절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 구절을 더 내려가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런 다음 14절에 주목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요한은

“만일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이면” 을 엘리야이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 17:10-12로 가십시오. 이것은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함께 기도한 후이며 10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오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본문들을 얻고 나서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고백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아니오', '네가 그 선지자냐' 하더이다.” 그곳의 선지자는 앞서 신명기 18장에서 본 “모세와 같이 오실 선지자” 라는 본문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예언자입니까?’ '아니요.’”

c. 접근 방식 해석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말라기 끝에 있는 이 예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사는 이 텍스트로 무엇을

합니까? 문제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중 참조 첫 번째는 “이중 참조”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에 대해 어떤 해석가들은 그 예언이 우리에게 엘리야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랍비들의 견해였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그들은 엘리야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참조 지지자들은 말라기의 예언이 그 본문들, 특히 마태복음에 기초하여 세례 요한에서 처음 또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주님의 날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6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Henry Alford의 *The Greek New Testament* 의 짧은 단락입니다 . Alford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11:13과 14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첫째, 거기에 있는 질문은 분명히 실제 엘리야가 지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이 두 구절[마태복음]에서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언에서와 같이 이 예언에서도 우리는 주와 그의 선구자의 오심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크고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있을 큰 날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님의.” 따라서 말라기 4:5과 6이 이중 참조, 즉 세레 요한에 대한 언급과 문자 그대로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한 미래의 언급이 있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2) 일반적 또는 연속적인 성취 - 월터 카이저 두 번째 견해는 그가 예언의 일반적 사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그의 개념과 관련하여 월터 카이저가 옹호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보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용 페이지 27을 보면 카이저의 말라기에 대한 주석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온 몇 개의 단락이 있으며*, 이 단락은 말라기 4:5 및 6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이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상은 그것을 Willis J. Beecher가 정의한 ‘일반 예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의미하는 용어는 “어떤 사건이 간격으로 분리된 일련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나 더 먼 부분 또는 다른 부분에 무관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복잡한 사건 전체에 적용할 때 일부 부분에도 적용되는 예측입니다.” 이제 그것은 일종의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레이블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세부 사항의 전체 복합체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특정 부분은 세부 사항의 복합체 내에서 이것 또는 저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Kaiser가 여기에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는 이중 참조와 이중 이행의 개념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의 글을 읽으면 -그는 수많은 책과 기사를 썼습니다 -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성경적 진술도 저자가 의도한 유일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진리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경우 말라기 4:5 및 6과 같은 예언이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입니다. 전체는 단일한 진리 의도이지만 그것의 일부는 전체 내의 하나의 특징을 참조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특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카이저를 잘못 표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카이저 자신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Beecher의 "일반적인 예언"의 정의를 완성한 후 Kaise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메시아의 선구자로. 그러나 그는 자신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라고 말함으로써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엘리야가 나올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연속적인 아나운서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언자들의 시작과 끝으로. 엘리야는 그가 예언자 반열의 우두머리였을 때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자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까? 그러나 “ 다른 모든 예언자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심히 타락한 시대’에 일으키신 개혁가였으며, 그의 배척은 특별히 무서운 주님의 날, 즉 먼저 아람인의 가책과 이스라엘의 포로로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영이 70명의 장로에게 임한 것처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넘어갔습니다(왕하 2:15).

따라서” 그리고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의 긴 줄이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메노 시몬스, 루터, 츠빙글리, 무디,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로 시작하여 세레 요한이 그 계승에 서 있고 엘리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영으로 오기 때문에 성취의 일부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말라기의 말에 있는 이 일반적인 예언으로 포함됩니다.

이제 내 질문은 어떻게 이 단일 진리 의도를 유지하고 단일 진리 의도 내에서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적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이행을 피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Kaiser가 당신이 이 일반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말라기 말미에 있는 이 진술의 의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 추상적이고 단일한 진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데 어떻게 확립하느냐입니다. 이런 모델은 어디서 얻나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4:5과 6의 말씀은 의미에 관한 한 이런 종류의 의도를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텍스트에 도입된 구조에 더 가깝고 다중 성취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완전히 만족스러운지 확신할 수 없으며 꽤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Alford와 같은 더 직접적인 종류의 다중 성취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그것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이 일반적인 예언을 얻었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게 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3) 세례요한에게 예언이 성취되다 세 번째 입장은 예언이 세례요한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그 예언을 요한에게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신약성경의 인용문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그 사람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꽤 강력한 진술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의 불가사의한 성격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오셨으나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추가적인 성취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레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도된 단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발견하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다윗 통치에 대해 말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오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당신은 더 내려가서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네 후손을 사로잡혀 가던 땅에서 구원하겠다. 야곱은 다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흠어 놓은 모든 나라를 진멸할지라도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징계하되 공의로만 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내가 너를 회복시키며 네 상처를 낫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니” 라는 미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메시아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돌볼 것이요.” 그리고 25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27절,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안전하리라.”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인에게 노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할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것은 이사야서 2장과 11장의 이사야 구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곧 내 종 다윗이라”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꽤 견고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요한에 대한 언급과 엘리야의 오심이 요한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21에서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찾고 있던 랍비들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라기 4장 예언의 성취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 디. 이중 참조에 대한 Vannoy의 분석 및 결론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마태복음 본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은 “오실 그 엘리야니 너희가 받아들이면 엘리야는 이미 왔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들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들을 뛰어 넘고 그 진술에 전혀 성취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가면 거의 이중 성취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와서 그들을 지탱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질문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당신이 성서의 진술에 관한 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두 증인에게서 어떤 인간적 성취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확고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목적은 여러분이 가서 이중 참조를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중 참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각을 찾고 찾는 것이 위험한 해석학적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이 예언적 제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내 자신의 결론은 이 어려운 본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중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기에서 이중

참조를 강요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맥은 분명히 심리학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8장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로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예언 제도를 가리킨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요한의 성취에서 예언의 예상치 못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중 참조를 강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신약의 진술은 매우 강력하고 요한에서 성취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른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다니엘 구절은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다른 언급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려운 말씀은 이사야 7:14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나 문맥을 보면 유다와의 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단일한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 시대에 출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처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선과 악을 알고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 바로 미래에 태어났다면 이 두 왕이 사라질 것이라는 맥락에서 본문 자체에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가상적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처녀를 통해 오는 미래의 아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한 동정녀

탄생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5. 해석적 분석은 모든 구절에서 문자와 비유 사이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결정에 선행해야 합니다. 5. 로 넘어가겠습니다. ”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측 예언에 대해 보고 들을 때(물론 그 문제는 예측 예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성경적 진술이나 어떤 종류의 문헌을 보고 있다면, 비 유적 이해에 따르면 발생하는 맥락 내에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 진술이 문자 그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30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버클리 미켈슨 의 것입니다.

*성경해석*, “해석적 분석은 어떤 구절에서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사이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결정에 선행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과 씀니다. 문자적인 것과 비유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것과 비유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법(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관계), 역사, 문화, 문맥, 원저자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을 수반하는 관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문자적 의미가 비유적 의미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기초에 의존 한다. 주어진 해석자가 특정 표현이 비유적이라고 선언하면 비유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지적입니다. 이것이 읽히려는 방식임을 암시하는 것이 텍스트에 있지 않는 한 텍스트에 와서 비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유는 모든 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비유적 의미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해석자들은 성경과 객관적인 요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론 체계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소가 비유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을 읽을 때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대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텍스트 자체를 읽기 시작하니까, 아니면 어떤 선입견 체계에서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고 그 시스템에 비추어 텍스트를 읽습니까? 텍스트를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합니까? 제어 원리는 무엇입니까?

1. 단순한 꼬리표를 피하십시오 때때로 해석자들은 성경과 객관적인 요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론 체계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소가 상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유적 의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신중한 해석자는 그가 해석하는 구절이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또는 “나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레이블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본문에 접근해야 하며, 본문이 당신을 인도하는



곳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완전한 문자적 해석자이거나 완전히 비유적인 해석자임을 암시하는 꼬리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지정된 개인이 의미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씨름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통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을 부주의하게 던지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통역사는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 모두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 비유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읽는 것이 구절의 의도라면 구절의 문자적 의미는 비유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절의 의도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학 체계가 개별 구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절을 해석합니까, 아니면 개별 구절의 해석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개별 구절의 호스트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면 구절을 연결하여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점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나는 그것이 개별 구절을 시작하고 작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절을 다른 구절과 완전히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로 밖뿐만 아니라 개별 구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 뒤에서 양방향으로 일종의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양자택일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시스템이 의미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통로를 극복하는 선입견 시스템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미가 텍스트에서 나와야 하고 적어도 부당한 방식으로 텍스트로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씨. Boettner : 터무니없는 접근이 아닌 한 문자 그대로

30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Loraine Boettner는 여기서 문자적 해석과 비유적 해석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은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또는 ‘부조리하지 않는 한 문자 그대로’로 표현해왔다.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Jesse F. Silver는 ‘다른 의미’가 지정된 ‘특정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특정 장소를 인정하는 규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한 공식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규칙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분명히 개별 독자는 그가 소집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마다

끝없이 다를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의 진술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언과 관련하여 그것은 종종 성취될 때까지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디. 말라기 4:5-6 다시 한 번            이제 말라기 4:5 및 6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문자적이고 비유적인 언어가 포함된 예언의 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세레 요한에서. “그러나 성서의 대부분, 특히 역사적이고 더 교훈적인 부분은 일부 비유적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부분들이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조차 많은 표현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넌센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 더 상징적인 곳에서 더 문자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문자적이고 무엇이 비유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엄격하고 빠른 규칙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료의 특성, 역사적 배경, 양식 및 목적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더 나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성화된 상식'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거나 똑같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은 개인마다 다소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특히 예측 예언에서 문자적인 것으로부터 비유적인 것을 분류하기를 원합니다. 텍스트와 씨름하고

가장 일반적인 구문, 문법, 예언의 목적 및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형. 설명: 사 2:4 무천년과 전천년 해석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입니다. “민족이 다시는 칼을 들고 민족을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돌아가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 이러하니라” 고 합니다 . 2절,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위에 높이 솟아 있을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와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집에 이르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의 많은 분쟁을 해결하시리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나라들 사이에서 심판하고 땅에 평화를 수립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예언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중에 으뜸으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산” 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적 예언입니다. 칼을 쟁기로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거듭난 개인의 마음에 복음이 역사한 결과로 생긴 평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에서 영적인 의미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과 다른 구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메시아가 통치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이 땅에서의 미래의 평화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말하고 싶은 그라데이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산이 산들 중에 우뚝 서며 작은 산들 가운데서 들리” 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날 대부분의 천년설주의자들이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 중심이 될 것입니다. ” 문자 그대로.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언덕들 가운데서 돋우어질 것이다’ 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높이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정말 억지로 하면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 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 산 위에, 산 위에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엄격한 문자 그대로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비유적 언어를 갖는 것, 전체 예언을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씨름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당신의 종말론적 시스템을 얻고 이것으로 다시 피드백하여 당신이 그것을 읽을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우 복잡해집니다.

에프. 이사야 4:2        이사야 4:2을 보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메시아닉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구절이며 나는 4:2-5이 교회의 현재 시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2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장은 이사야 11장이 위험의 부재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평화와 안전의 시간입니다. 여기 이사야 4:2-5에서 여러분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캐노피가 될 것입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피난처와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즉 외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 시대의 성막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절에서 그 구절이 시작되는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와  
 가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해석자들은 그것을 메시아에 대한  
 참조로서 메시아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남은 자의 더러움을 씻으시리니. 심판의 영광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핏자국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  
 절이 비유적이며 주님의 가지가 메시아를 묘사하는 비유적 언어라는 데 많은  
 논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인간적 본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유적인  
 것을 더 밀고 아마도 합법적일 것입니다. “ 여호와와 가지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라는 구절의 전반부 와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요”라는 구절에서. 주님의 가지와 땅의 소산은  
 주님과 나란히 신성하지만 주님은 또한 인간이시다. 땅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 문자 대 비 유적 언어를 여기서 얼마나 멀리 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비유적 언어지만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것이 Boe  
 ttner가 말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상식적인 판단과 사람들은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이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기계적인 단계는 없습니다. 1, 2, 3,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구절을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으로 만들지 만 또한 구절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책임있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g. Turner와 Gundry 31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인용이 하나 있습니다. Turner가 여기에서 지적한 요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양한 종말론적 저술가들은 종말론적 체계의 차이가 '주로 성경의 각 해석에 사용된 독특한 방법에서' 발생한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진술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합니다. 성경적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일관성은 그의 신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그의 신학은 분명히 그의 해석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순전히 귀납적이며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으로서 '문자적' 또는 '영적인' 해석학을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한 일반론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 문제인 특정 성경 구절의 해석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그의 강조가 됩니다. “모든 성경 연구에는 어느 정도의 해석학적, 신학적, 해석학적 사전 이해가 포함됩니다.

해석가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조차도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undry는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석학이 중요하지 않다 거나 일관된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그러한 해석학은 시, 예언, 비유적 언어를 포함한 성경 전체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의 결과는 '나무 문자주의'가 아니라 비유적 표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에 민감한 문자적 해석학이다. “그러나 특정 성경 구절의 주석에서 주석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학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신학적 전제에 의해 전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화하는' 해석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비세대주의자들이 성경, 특히 구약을 영화화하거나 풍유화한다고 비난하고, 언약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을 과잉 문자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논쟁이 모호한 일반성으로 진행되는 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입니다. [Greg] Bahnsen 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

h. Bahnsen의 조언: 시스템에서 벗어나 특정 텍스트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석의적 저작이지만 나는 신율학에 대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은 *특정 구절과 구문*에 대한 직접적인 주석 전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즉, 시스템에서 벗어나 특정 텍스트를 살펴보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장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1장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이 전체 토론에서 몇 가지 핵심 구절입니다. Turner는 “이론적 해석학에 대한 모호한 일반성은 거의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학 이론의 유일한 근거에서 종말론적 체계를 무심하게 무시하는 것은 보다 적절한 문제를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중 해석학' 옹호자들을 '알레고리화' 했다는 비난으로 일축할 수 없으며, 세대주의자들을 '과대문자적'이라는 질책으로 몰아붙일 수도 없습니다 .

그러나 특정 문제에 대한 해석학적 *결론*은 자신이 공언하는 해석학적 *방법* 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세대주의자와 언약 신학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석학적 질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주된 부담은 유익한 토론이 신약의 구약 사용과 점진적 계시의 본질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구절을 해석하고 유익하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더 큰 주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외부에서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보다 개별 구절의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로마 숫자 IX에 대한 연구를 마칩니다. 지난 주에 유인물을

드렸는데 “성경 예언의 변증적 가치”라는 로마 숫자 X의 추가 사항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제시카 스킨모어가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의 내레이션